

원픽

one pick:
내가 최고로 뽑은 것!

| 고등 국어 |

현대시

현대시

신수능 전략

문제가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최근 수능 출제 경향에 따르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지문과 자료를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수능 필수 과목, 문학!
갈래별로 달라야 하는 문학 공부!

현대시! '무엇을', '어떻게' 보고 학습 방법을 찾으면 될까?

팩트 체크!

- ✔ 교과서에서 본 친숙한 작가의 작품이 출제
⇒ 박재구, 김기택, 김수영, 이시영 등의 작품이 2회 이상 출제되었으며, 그 밖에도 윤동주, 이육사, 유치환, 김춘수, 이용악 등 친숙한 작가의 작품이 출제되고 있다. 최근에서는 이용악의 「그리움」 등 기존에 수능에서 출제된 작품이 다시 출제되기도 하였다.
- ✔ 익숙한 작가의 '낯선' 작품이 출제
⇒ 교과서나 연계 교재에 실리지 않은 낯선 시가 복합된 구성으로 출제되어, 작가에 대한 배경지식과 시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 복합 지문을 통해 지문의 난도를 높여 출제
⇒ 쉬운 작품도 복합 지문으로 출제되면서 작품을 복합적으로 해석하도록 하여 지문의 난도를 높이고 있다.
- ✔ 다양한 유형과 어려운 내용의 <보기>를 제시한 문제 출제
⇒ 다소 쉬운 지문의 문제도 어렵게 느껴지게 하는 깊이 있는 내용의 <보기>가 자료로 제시되면서, 이에 따라 선택지의 길어도 길어지고 난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문학 갈래의 양식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시의 내용 이해 등 <보기>를 바탕으로 한 낯선 시각으로 시에 접근하게 하는 신유형 문제가 출제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작품을 심층적으로 이해·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추세이다.

전략 체크!

- ✔ 시대별 필수 작가의 작품 학습
⇒ 교과서, 수능 및 모의고사, EBS 연계 교재에서 출제될 높은 시대별 필수 작가의 주요 작품을 우선 공부
(→ 우리 교재의 필수 선정 작품 학습)
- ✔ 맥락을 통해 이해하는 어휘 학습
⇒ 선정된 작품과 관련된 어휘 중 맥락을 통한 이해가 필요한 어휘를 선정하여 학습하고 시어를 분석하는 힘 기르기
(→ 우리 교재의 '어휘 테스트' 활용)
- ✔ 신유형 문제 패턴 & 지문 패턴 학습
⇒ 현대시의 갈래적 특성과 시대적 흐름 확실하게 알아두기
① 현대시의 내용적·형태적 특성에 대한 학습을 한 후, 이러한 특성이 작품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 우리 교재의 '어려운 현대시 쉽게 감상하기', '현대시 절대 개념 학습', '시대의 흐름과 문학사적 특성' 활용)
② 현대시의 해석과 학습에서 나아가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다양한 작품에 구현된 양식적 특성을 평가하는 학습을 한다.
(→ 우리 교재의 '실전 문제' 활용)
⇒ 신유형 문제와 복합 지문 유형 접하고 풀기
문학 작품이 사회·문화·역사적 맥락과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그러한 관련성을 바탕으로 작품의 다양한 해석을 평소에 연습해 보아야 하며, 둘 이상의 작품을 비교·분석하는 연습을 통해 긴 선지에도 당황하지 않아야 한다.
(→ 우리 교재의 '기출 변형'·'고난도' 문제와 'Ⅶ. 복합 실전' 단원 활용)

현대시 사용 설명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현대시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교재 구성

본책(문제)

내신과 수능 준비 학습!

- 교과서, 수능 및 모의고사 빈출 작품 수록
- 예비 평가 문항, 최신 수능 연계 교재에서 출제된 신유형 문제와 지문 수록
- 역대 기출 분석을 통한 '복합 실전' 유형 추가

정답과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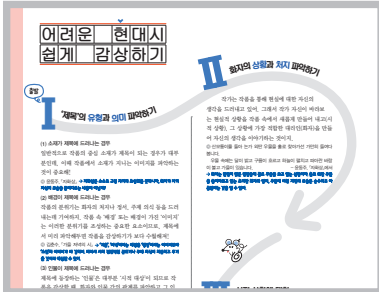
제재 핵심 분석과 정확한 문제풀이!

- 제재별로 필요한 정보 핵심 분석
- 정확한 정답 해설, 필요한 오답 해설

학습 순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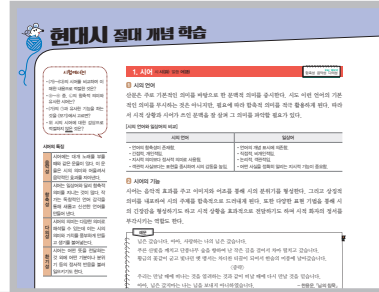
- 1 학습 계획표 작성
- 2 필수 개념 학습
- 3 시대별 실전 문제 풀기
- 4 어휘 테스트로 어휘력 점검
- 5 복합 실전 문제 풀기
- 6 제재 분석 학습
- 7 정·오답 분석 확인

우리 교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 어려운 현대시 쉽게 감상하기

현대시 작품을 분석하고 문제를 푸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패턴화하여 실전에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시간을 빠르게 단축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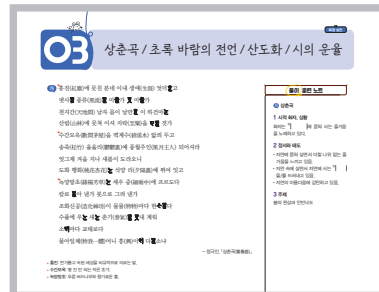
▲ 현대시 절대 개념 학습

운문 문학, 특히 현대시를 공부하기 전에 필요한 수능 필수 개념만을 모아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 시대별 실전 문제 풀기

교과서, 수능 및 모의고사, EBS 연계 교재에서 다른 작품에서 우선적으로 학습해야 할 작품을 선정하여 시대별로 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을 최신 경향의 문제 유형을 통해 학습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 복합 실전

난이도 높은 신경향의 지문과 문제를 익힐 수 있도록 한 실전 단원입니다. 갈래 복합, 영역 복합 지문 패턴을 접하고 실전을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 의 차례

- **계획일** 나의 페이스에 맞게 일정 수립하기
- **학습일** 실제로 공부한 날을 적기
- 복습까지 끝낸 단원에는 □에 √ 표시하기

어려운 현대시 쉽게 감상하기	006
현대시 절대 개념 학습	008

I. 일제 강점기(1910년대~광복 이전)

		계획일	학습일	
<input type="checkbox"/> 01	진달래꽃(김소월) / 수의 비밀(한용운)	014	/	/
<input type="checkbox"/> 02	노신(김광균) / 흰 바람벽이 있어(백석)	016	/	/
<input type="checkbox"/> 03	낡은 집(이용악)	019	/	/
<input type="checkbox"/> 04	춘설(정지용)	022	/	/
<input type="checkbox"/> 05	절정(이육사) / 독을 차고(김영랑)	024	/	/
어휘 테스트		026	/	/

II. 광복 이후~1950년대

		계획일	학습일	
<input type="checkbox"/> 01	윤사월(박목월) / 낙화(이형기)	028	/	/
<input type="checkbox"/> 02	초토의 시 1(구상) / 초토의 시 8- 적군 묘지 앞에서(구상)	030	/	/
<input type="checkbox"/> 03	꽃담불(신석정) / 산상의 노래(조지훈)	032	/	/
<input type="checkbox"/> 04	무등을 보며(서정주) / 성탄제(김종길)	035	/	/
<input type="checkbox"/> 05	눈물(김현승) / 눈(김수영)	038	/	/
어휘 테스트		040	/	/

III. 1960~1970년대

			계획일	학습일	
<input type="checkbox"/>	01	나비와 철조망(박봉우) / 껍데기는 가라(신동엽)	042	/	/
<input type="checkbox"/>	02	겨울 바다(김남조)	044	/	/
<input type="checkbox"/>	03	벼(이성부)	046	/	/
<input type="checkbox"/>	04	중소리(박남수) / 저녁에(김광섭)	048	/	/
<input type="checkbox"/>	05	흥부 부부상(박재삼) /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김춘수)	050	/	/
<input type="checkbox"/>	06	산문에 기대어(송수권) / 꽃밭의 독백 - 사소 단장(서정주)	052	/	/
<input type="checkbox"/>	07	저문 강에 삼을 씻고(정희성) / 농무(신경림)	054	/	/
		어휘 테스트	056	/	/

IV. 1980년대

			계획일	학습일	
<input type="checkbox"/>	01	우리 동네 구자명 씨(고정희)	058	/	/
<input type="checkbox"/>	02	오렌지(신동집) / 새들도 세상을 뜨는 구나(황지우)	060	/	/
<input type="checkbox"/>	03	상행(김광규) /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장정일)	062	/	/
<input type="checkbox"/>	04	납작납작 -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김혜순) / 섬진강 1(김용택)	065	/	/
<input type="checkbox"/>	05	개밥풀(이동순)	068	/	/
		어휘 테스트	070	/	/

V. 1990년대 이후

			계획일	학습일	
<input type="checkbox"/>	01	대장간의 유혹(김광규) / 퇴근 시간(문정희)	072	/	/
<input type="checkbox"/>	02	우포늪 왁새(배한봉) / 강우(김춘수)	075	/	/
<input type="checkbox"/>	03	속 좋은 떡갈나무(정끝별) / 간격(안도현)	077	/	/
<input type="checkbox"/>	04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이문재) / 성애꽃(최두석)	079	/	/
		어휘 테스트	082	/	/

VI. 복합 실전

			계획일	학습일	
<input type="checkbox"/>	01	[시대 복합] 향연(박두진) / 휴전선(박봉우)	084	/	/
<input type="checkbox"/>	02	[갈래 복합] 낙타(이한직) / 돌층계(유경환)	086	/	/
<input type="checkbox"/>	03	[영역·갈래 복합] 상춘곡(정극인) / 초록 바람의 전언(고재중) / 산도화(박목월) / 시의 운율	089	/	/
<input type="checkbox"/>	04	[영역·시대 복합] 문학에서의 '부끄러움' / 쉽게 씌어진 시(윤동주)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김수영)	092	/	/
		어휘 테스트	096	/	/

정답과 해설

어려운 현대시 쉽게 감상하기

출발

I

'제목'의 유형과 의미 파악하기

(1) 소재가 제목에 드러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작품의 중심 소재가 제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작품에서 소재가 지니는 이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예 운동주, 「자화상」 → 자화상은 스스로 그린 자기의 초상화를 뜻하니까, 화자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내용이 아닐까?

(2) 배경이 제목에 드러나는 경우

작품의 분위기는 화자의 처지나 정서, 주제 의식 등을 드러내는데 기여하지. 작품 속 '배경' 또는 배경이 가진 '이미지'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제목에서 미리 파악해두면 작품을 감상하기가 보다 수월해져!

예 김춘수, 「가을 저녁의 시」 → '가을', '저녁'이라는 배경은 '생성'이라는 이미지보다 '소멸'의 이미지가 더 강하지. 따라서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주제 의식이 차분하고 무거울 것이라 예상할 수 있어.

(3) 인물이 제목에 드러나는 경우

제목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부분 '시적 대상'이 되므로 작품을 감상할 때, 화자와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인물이 화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렴.

예 강우식, 「어머니와 물감 상자」 → 시적 대상이 당연히 '어머니'겠지? '어머니'는 보편적으로 사랑과 그리움의 대상이고, 이를 전제로 '어머니'와 '물감 상자'의 관련성을 파악하며 감상한다면 화자의 정서를 보다 쉽게 알 수 있을 거야.

(4) 부제가 제목과 함께 드러나는 경우

'부제'는 일반적인 제목(표제)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때로는 제목보다 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 제목과 함께 부제의 의미나 관계를 알면 주제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예 구상, 「초토의 시 8-적군 묘지 앞에서」 → 제목 중 '초토'라는 단어는 생소하지만, 부제를 통해 '전쟁과 죽음'에 대한 작품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 적군 묘지 앞에서 화자가 느끼는 감정, 행동을 파악하면 되겠지?

(5) 제목이 문장 형태로 제시된 경우

문장 형태의 제목은 대개 작품의 주제나 요지를 직접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특히 구나 절의 형태로 제시된다면 반드시 뒤에 이어질 내용을 작품에서 찾아내야 해.

예 정희성, 「저문 강에 샴을 씻고」 → 이 시의 경우 화자가 저문 강에 가서 샴을 씻으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찾고 제목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쉽게 알 수 있겠지?

II

화자의 상황과 처지 파악하기

작가는 작품을 통해 현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어. 그래서 작가 자신이 바라보는 현실적 상황을 작품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 내고(시적 상황),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리인(화자)을 만들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 산모통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 운동주, 「자화상」에서
→ 화자는 달빛이 밝은 한밤중에 홀로 우물을 보고 있는 상황이야. 홀로 외딴 우물을 들여다보고 있는 초라한 화자와 달리, 우물에 비친 자연의 모습은 순수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어.



III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나 태도 파악하기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나 태도는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우선 작품에 드러난 화자의 생각과 말, 행동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겠지? 또 이를 드러내는 시어, 표현, 어조 등에 주목하면서 화자가 시적 상황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봐도 좋겠어.

예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내가 가없어집니다.

- 운동주, 「자화상」에서

→ 우물에 보이는 '사나'가 누구일까? 맞아. 화자 자신이지. 화자는 지금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한편 스스로 연민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VI

작품과 시대적 배경 관련짓기

문학 작품은 창작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기 마련이야. 이는 현대시 역시 마찬가지이지. 문학은 현실을 떠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화자가 고난과 억압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소망할 것이며, 이러한 정서나 태도가 작품에 드러나겠지? 그러므로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연관지어 시어의 상징적 의미,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주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해. 이제 우리가 배울 「원픽 현대시」에서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으니 기대해!

예) 윤동주, 「자화상」 → 윤동주가 「자화상」을 쓴 1930년대 후반은 일제의 우리 민족에 대한 수탈과 탄압이 극에 달했을 때야. 이러한 시기에 윤동주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미워하면서 연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 식민지 지배하의 지식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한편 그러한 암울한 현실에 놓인 자기 자신에 대해 안쓰러움을 느끼고 있지. 그래서 화자는 우물 밖과는 달리 평화로운 풍경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어.

VI

작가의 시적 경향 파악하기

일반적으로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가의 시적 경향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보기>에 작가의 생애, 작품의 경향 또는 창작 동기 등의 정보를 자료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통해 작가의 시적 경향을 파악한 후 작품을 감상하면서 적절히 대입하면, 작품의 상징적 의미나 주제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어.

예) **보기**
윤동주는 이상을 지향하는 자아와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적 자아의 충돌로 인해 나타나는 고뇌를 담은 작품을 다수 창작하였다. 그는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윤리적인 삶을 꿈꾸지만 현실에서 이를 완전하게 실현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부끄러움을 드러낸다. 그는 이러한 성찰과 이상 추구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시에 반영하면서 시인으로서의 숙명을 보여 주고 있다.

- 2017년 9월 고1 교육청 모의고사 19번

→ <보기>에서는 윤동주의 시 전반에 걸친 주제 의식과 창작 경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 <보기>에서 제시된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충돌', '자기 성찰', '부끄러움' '시인의 숙명' 등의 내용을 통해서 「자화상」 역시 '사나이', 즉 또 다른 자아인 '우물 안의 나'를 들여다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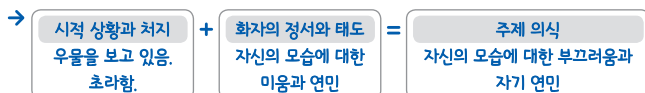
IV

내재적 요소를 파악하여 주제 의식 이끌어 내기

현대시 작품에서 내재적 요소(시어, 운율, 이미지, 표현 기법 등)를 파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를 통해 화자의 처지나 상황, 정서, 태도 등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야. 결과적으로 시인이 작품에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지. 그럼 여기서 “포인트 공식”을 하나 볼까?

★ **포인트 공식!**
시적 상황 파악 + 화자의 태도, 대응 방식 파악 = 주제 의식 추리

예) 윤동주, 「자화상」



V

표현 방법과 그 효과 파악하기

시인은 시에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서나 생각, 나아가 작품의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그러므로 작품에 쓰인 표현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표현의 효과가 무엇인지 파악한다면 당연히 시인의 의도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예)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에서

→ 역설적 표현의 활용! 표면적으로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것 같지만 그 진실 이면에 진실을 담고 있으며, 시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방법이야. 이 시는 일제 강점기에 지조를 지킨 김영랑의 작품이야. 작가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절망감 속의 봄(광복)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거야.



현대시 절대 개념 학습

시험에서는!

- (가)~(다)의 시어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중, ㉠의 함축적 의미와 유사한 시어는?
- (가)의 ㉠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 위 시의 시어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어의 특징

음악성	시어에는 대개 노래를 부를 때와 같은 운율이 있다. 이 운율은 시의 의미와 어울려서 음악적인 효과를 자아낸다.
함축성	시어는 일상어와 달리 함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 많다. 작가는 독창적인 언어 감각을 통해 새롭고 신선한 언어를 만들어 낸다.
다의성	시어의 의미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시의 의미와 가치를 풍부하게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는다.
환기성	시어는 어떤 뜻을 전달하는 것 외에 어떤 기분이나 분위기 등의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시험에서는!

- ㄴ과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보기>의 화자가 들려 줄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ㄱ에 나타난 화자의 심정과 가장 유사한 것은?
- (가)와 (나)의 화자가 대화를 나누고 할 때, 작품에서 드러나는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시어 시(詩) 말씀 어(語)

key Word
함축성 음악성 다의성

1 시의 언어

산문은 주로 기본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한 문맥적 의미를 중시한다. 시도 이런 언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함축적 의미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시적 상황과 시어가 쓰인 문맥을 잘 살펴 그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시의 언어와 일상어의 비교]

시의 언어	일상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의 함축성이 존재함. • 간접적, 개인적임. • 지시적 의미보다 정서적 의미로 사용됨. • 객관적 사실보다는 표현을 중시하여 시의 감동을 높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의 개념 표시에 의존함. • 직접적, 비개인적임. • 논리적, 객관적임. • 어떤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 지시적 기능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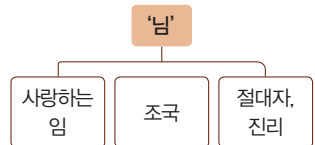
2 시어의 기능

시어는 음악적 효과를 주고 이미지와 어조를 통해 시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리고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여 시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게 된다. 또한 다양한 표현 기법을 통해 시의 긴장감을 형성하기도 하고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도 하며 시적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키는 역할도 한다.

예문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중략>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나는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님은 갔지만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님'은 화자가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는 대상이자, 간절하게 기다리는 대상이다. '님'은 시에 쓰인 그대로 '사모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작가가 독립운동가이자 승려였다는 배경을 고려하였을 때 일제에 의해 찬탈당한 조국, 구도를 통해 달기를 바라는 절대자(부처)나 진리로 해석될 수도 있다.



2. 화자의 정서와 태도 이야기 화(話) 사람 자(者)

key Word
화자 정서 태도

1 화자(시적 자아, 서정적 자아)

시적 화자란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시에서 작가를 대신하여 말하는 목소리의 주인공, 즉 작가의 정서와 사상을 대변하는 인물을 말한다.

예문

안녕히 계세요. / 도련님. / 지난 오월 단옷날, 처음 만나던 날 / 우리 둘이서 그늘 밑에서 있던 그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 / 늘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 서정주, 「춘향 유문-춘향의 말 3」

→ 작가가 화자인 '춘향'의 목소리를 빌려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2 화자의 정서

화자의 정서란, 화자가 세계와 부딪히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온갖 감정과 생각을 말한다.

화자의 정서의 종류

긍정적(밝은) 정서	희망, 즐거움, 기쁨, 사랑, 여유 등
부정적(어두운) 정서	절망, 허무, 고독, 분노 등

자주 나타나는 시의 어조

- 긍정적인 태도 - 부정적인 태도
- 예찬적 태도 - 비판적 태도
- 의지적 태도 - 체념적 태도

시험에서는!

- ㄱ~르 중, (다)의 '작은 마음'과 그 이미지가 대응되는 시어는?
- (가)의 흐름으로 보아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미지끼리 묶인 것은?
- <보기>는 (가)의 시를 해석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나)와 (다)의 시어 중, 이와 유사한 해석 방법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미지의 종류

감각적 심상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의 감각에 의한 심상

공감각적 심상

감각의 전이(시각의 청각화 등에 의한 심상

예문

어머니, /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 깊은 산림대를 끼고 돌면 / 고요한 호수에 흰 물새 날고, / 좁은 들길에 들장미 열매 붉어. // 멀리 노루 새끼 마음놓고 뛰어 다니는 /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 신석정,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 위 시는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화자의 욕망이 평화와 안식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으로 형상화되어 있고 밝고 긍정적인 정서를 잘 보여 주고 있다.

3 화자의 태도

화자의 태도란, 화자가 대상이나 독자, 사회를 향해 내는 개성적인 목소리 및 대응 방식을 말한다. 화자의 태도는 주로 '어조'를 통해 드러난다.

예문

껍데기는 가라. /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 껍데기는 가라. //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곱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 껍데기는 사라.
-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 위 시에서는 4·19와 동학 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자 하는 화자가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 존재인 '껍데기'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이미지 마음 심(心) 형상 상(象)

Key Word
이미지 심상 감각

1 이미지의 개념

'이미지'란 언어에 의해 마음 속에 떠오르는 어떤 대상의 감각적 영상을 말하는 것으로, '심상'이라고도 한다. 즉 이미지란 감각 기관을 통하여 받아들인 사물의 빛깔과 모양, 소리, 냄새, 맛, 촉감 등의 인상을 상상이나 기억으로 떠올린 것을 말한다.

2 이미지의 유형

묘사적 이미지	대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거나, 감각적 수식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인상을 형상화하는 감각적 이미지
비유적 이미지	대상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로, 주로 직유, 은유, 대유, 의인화 등의 수사적 방법으로 형상화됨.
상징적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가 지닌 기본 기능 외에 어떤 주관적 관념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미지. 원관념과 보조 관념이 함께 나타나는 은유와 달리 상징에서는 보조 관념만 나타나며, 이때 순겨진 원관념은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것이 특징임. 대개 추상적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

예문

(가) 피아노에 앉은 / 여자의 두손에서는 / 끊임없이 / 열 마리씩 / 스무 마리씩 / 신선한 물고기
가 / 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 / 쏟아진다.
- 전봉건, 「피아노」
(나) 나는 새장을 하나 샀다. / 그것은 가죽으로 만든 것이다. / 날뛰는 내 발을 집어넣기 위해 만든 작은 감옥이었던 것 // 처음 그것은 발에 너무 컸다. / 한동안 털그럭거리는 감옥을 끌고 다녀야 했으니 / 감옥은 작아져야 한다. / 새가 날 때 구두를 감추듯
- 송찬호, 「구두」

→ (가)는 피아노의 선율을 빛을 내며 튀어 오르는 물고기의 모습으로 그려 내고 있는데, 이때 생동감이 넘치는 물고기의 모습은 청각적 대상인 피아노의 선율을 듣고 머리속에 떠올린 감각적 영상(시각적 이미지)에 해당한다. (나)에서 '새장'은 문맥상 구두를 가리킨다. 그런데 화자는 구두를 '감옥'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시의 맥락상 '새장'은 '부자유, 구속, 억압' 등의 관념을 연상시키는 상징적 이미지이다.

시험에서는!

- 윗글의 시상 전개와 거리가 먼 것은?
- (나)의 시적 형상화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가)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로 거리가 먼 것은?
- (나)의 표현상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밖에 시의 표현 방법

- 언어 유희: 동음이의어의 해학적 사용처럼, 말이나 문자의 발음 혹은 생김새의 유사성과 인접성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는 일종의 말장난. 대개 표현의 신선함을 높이거나 대상을 풍자하기 위해 사용
- 감정 이입: 화자 자신의 감정을 대상에 투사하여 마치 그 사물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4. 시의 표현 겉 표(表) 나타날 현(現)

key Word
비유 상징 반어 역설

1 시상 전개 방법

작가가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담아 내기 위해 시의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으로, 사건의 진행을 담은 '서사적 전개', 시선의 이동에 따르는 '공간적 전개', 원인과 결과를 드러내는 '인과적 전개', 정서를 점점 고조시키는 '점층적 전개', 제재나 이미지를 나열하는 '병렬적 전개', 시상이나 이미지를 대조적으로 펼쳐 나가는 '대립적 전개' 등이 있다.

2 비유

표현하고자 하는 본래의 뜻이나 사물(원관념)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매개물이 되는 다른 사물(보조 관념)을 끌어다 쓰는 수사법을 말한다.

직유	'처럼, 같이, 듯이, 같은, 만큼' 등을 매개로 원관념과 보조 관념이 직접 결합한 형태의 비유
은유	연결어 없이, 'A는 B이다'의 형태로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연결한 비유
의인	사람이 아닌 사물 혹은 관념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비유
풍유	속담이나 격언처럼 원관념을 완전히 숨기고 보조 관념만으로 본래의 의미를 암시하는 비유
대유	사물의 일부나 특징을 들어 전체를 나타내는 비유

3 상징

복잡하고 추상적인 관념을 감각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 대상으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다. 암시성과 다의성을 지니며, 별다른 유사성이 없는 사물과 관념의 연합이기 때문에, '비슷한 성질을 가진 사물과 사물의 연합'인 비유와 구별된다. 비유에서 원관념은 숨고 보조 관념만 나타나 있는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4 반어와 역설

반어	일부러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정반대의 진술을 함으로써, 날카로운 감각을 살리고 의도와 효과를 도리어 증폭시키는 기법. 반어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와 이면에 숨어 있는 의미가 서로 반대인데,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본뜻은 이면적 의미에 있음.
역설	본질적으로 참이지만 외견상 얼핏 보기에는 의미가 서로 충돌하거나 논리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는 진술 형태를 가리키는 말. 따라서 역설적 표현에 담겨 있는 나름의 진실을 음미하기 위해서는 색다른 시각에서 대상과 상황을 보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사고력이 필요함. 모순 어법이나 모순 형용에 의한 표현이 주를 이룸.

예문

쫓아오던 햇빛인데 / 지금 교회당 꼭대기 /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침탐이 저렇게도 높은데 /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 소리도 들려 오지 않는데 /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 처럼 /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어 가는 하늘 밑에 /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 윤동주, 「십자가」

→ 위 시에는 상징이 많이 사용되었다. '햇빛'은 '정의로운 삶의 지표'를, '침탐'은 '현실적 장애'를, '십자가'는 '인간의 역사와 신의 은총이 만나는 표상'인 동시에 화자의 '희생 의식'을 각각 상징한다. 그리고 '괴로웠던 사나이, /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는 '괴로움'과 '행복함'이라는 의미가 충돌하는 모순 형용이므로 역설의 일종이다.

시험에서는!

- (가)에 비해 (나)의 화자는 흔들리는 현상을 바탕으로 자신을 대상과 동일시하고 있다.
- (나)의 '남풍'은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와 화자를 매개한다.
-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식이 드러난다.

매개체

시적 대상이 작품 속에서 일정한 기능을 하는 매개체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대개 과거를 회상한다든지, 교훈과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반성과 성찰을 한다든지, 갈등을 해소할 때 그 계기가 되는 대상을 가리킨다.

시험에서는!

-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 각 3연이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어 후렴구로 기능하고 있다.

규칙성과 반복성에 의한 운율의 구현 방법

- 유사한(동일한) 음운의 반복
- 음성 상징어(의성어, 의태어)의 사용
- 일정한 글자 수, 음보 수의 반복
- a-a-b-a 구조의 사용
- 동일한 시어, 시구, 시행, 통사(문장) 구조의 반복
- 유성음(ㄴ, ㄹ, ㅁ, ㅇ, 모음)의 반복이나 잦은 사용

5. 시적 대상 대할 대(對) 형상 상(象)

Key Word
대상 동일시 매개체

1 시적 대상의 개념

시적 대상은 무엇보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화자와 시적 대상은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동일시되는 경우도 있다.

예문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

- 윤동주, 「서시」

→ 위 시에서는 화자인 '나'가 바로 작가 자신이고, 노래하고 있는 대상은 작가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이다. 따라서 위 시는 자기 자신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화자와 시적 대상이 같다. 이처럼 고백적이고 성찰적인 시에서 화자와 시적 대상이 일치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2 동일시의 대상

시에는 화자나 시적 인물들의 삶 또는 인식과 동일시된 대상이 등장하기도 한다. 동일시된 대상은 화자나 시적 인물들의 특성을 잘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동일시한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문

아랫목에 모인 /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 아니 십구 문 반의 신발이 왔다.

- 박목월, 「가정」

→ 위 시에서는 '나(아버지)'의 귀가를 '내가 왔다. / 아버지가 왔다. / 아니 십구 문 반의 신발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십구 문 반의 신발'은 '나'와 동일시된 대상이다. '나'는 아홉 명의 자식을 둔 가정으로, '십구 문 반'이라는 신발의 크기(문수)로 그 책임감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6. 운율 운운(韻) 법률(律)

Key Word
반복 음악성

1 운율의 개념

시에서 일정한 소리의 요소가 규칙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생기는 음악적 효과를 말한다. 운율은 문학 장르의 하나인 서정(시) 장르의 고유한 특성으로, '유사한 소리가 일정한 위치에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운(韻)'과 '소리의 수량적 단위, 즉 소리의 수나 음보의 수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율(律)'이 결합된 말이다. 일반적으로 운율은 규칙성과 반복성에 의해 형성되며, 이러한 이유로 '리듬', '음악성' 등의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예문

(가) 제1의아해가무섭다그리오. / 제2의아해도무섭다그리오,
제3의아해도무섭다그리오.

- 이상, 「오감도-시 제1호」

(나) 마음이 도르도른 숨어 있는 곳. / 내 마음의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 김영랑, 「끝없이 강물이 흐르네」

→ (가)는 동일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동일한 통사 구조가 사용되면 음운, 글자 수, 음보율 등도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의도적으로 유음(ㄹ)과 비음(ㄴ, ㄹ, ㅇ)을 많이 사용하고, 의태어를 부드럽게 변형('도르도른')하여 리듬감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시 절대 개념 학습

2 외형률과 내재율

외형율	운율의 요소가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
내재율	운율의 요소가 시의 외형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으나 시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

예문	
(가)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피네 /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피네	- 김소월, 「산유화」
(나) 흰 옷깃 여며 여며 가읍신 임의 /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 삼만 리	- 서정주, 「귀족도」

→ (가)는 3음보를 여러 행에 걸쳐 배열하는 한편 행의 끝 소리를 '~네'로 통일함으로써 각운에 의한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다. (나)에서는 각 행이 7·5조의 음수율과 3음보의 음보율이 반복되어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다.

시험에서는!

- (가)는 (나)와 달리 연을 구분하지 않고 성찰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7. 어조 말씀 어(語) 고를 조(調)

key Word
목소리(말투)

1 어조의 개념

시적 대상, 소재, 독자 등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정서가 담긴 목소리(말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어조는 서술어의 종결 어미, 시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화자의 어조를 파악하는 것은 화자의 정서, 태도, 심리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2 어조의 종류

성찰적 어조	화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거나 자신을 반성하는 태도가 담긴 어조임. 경어체의 사용, 담담한 평서형 문장의 구사를 통해 실현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나 '우물'과 같은 시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음.
영탄적 어조	화자가 지닌 슬픔이나 기쁨, 감동 등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는 어투를 의미하며, '아, 오, 아아' 등과 같은 감탄사, '-아라 / -어라, -구나'와 같은 감탄형 어미, 감정을 실어 누군가를 부르는 표현을 통해 실현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독백적 어조	화자가 자신의 감정, 태도 등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거나 혼자 조용히 읊는 어투를 의미함. 평서형이나 감탄형 어미에 의해 실현되는 경우가 많음.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	시어의 정교한 사용을 통해 전달되는 정서나 인상이 매우 부드럽고 세련된 어조를 의미함. 시어에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유음(ㄹ)을 첨가하거나 비음(ㄴ, ㄹ, ㅇ)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실현되는 경우가 많음.

3 어조의 변화

시의 어조는 한 작품 내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상의 전개 과정에서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변화하는 경우, 앞부분의 어조와는 다른 인상을 주는 어조로 바뀌기도 하는데, 이를 '어조의 변화'라고 한다.

예문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를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 걸어가야겠다. //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윤동주, 「서시」

→ 위 시의 1~4행에서는 평서형 문장을 통해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적 어조가 드러나고 있다가, 5행부터 다짐을 나타내는 표현('사랑해야지')과 미래형 어미('-겠')를 통해 삶의 의지를 다지는 의지적 어조로 변화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1910년대~광복 이전)



시대의 흐름과 문학사적 특징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에 의해 국권을 빼앗긴 시기로 국권 회복을 위한 3·1 운동을 펼쳤지만 실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의 식민지 문화 정책 실시로 동인지와 잡지, 신문이 창간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 탄압이 고조된 시기로, 문학 창작에도 제약이 심해져 문인들이 절필하거나 변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한 민족 문학의 암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격적인 근대 문학이 전개되었고, 김억, 주요한 등을 중심으로 자유시가 창작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 문예 사조가 유입되며 카프(KAPF)가 결성되어 본격적인 계급 문학이 시작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수 문학이 등장하여 순수시, 모더니즘 시 등의 다양한 시적 경향이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의 탄압에 맞서는 저항시 향토적인 정서와 이상향에 대한 열망을 자연적인 소재로 표현

주요 작가 읽어 보기

	키워드 및 경향	주요 작품(*수록)
김광균	도시 문명, 모더니즘, 이미지즘 도시적 소재와 공감각적 이미지를 즐겨 사용했으며, 이미지의 공적인 조형(造形)을 시도함. 시집으로 『와사동』(1939) 등이 있음.	대생, 추일 서정, *노신
김소월	정한(情恨), 전통적 정서, 전통적 가락 이별과 정한 등을 주제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와 가락을 표현함. 시집 『진달래꽃』(1925) 등이 있음.	접동새, *진달래꽃, 초혼, 가는 길, 산유화
김영랑	순수 서정시, 세련된 감각 섬세한 서정으로 순수 서정시 운동을 주도하며 새로운 경지를 개척함. 시집 『영랑 시집』(1935) 등이 있음.	모란이 피기까지는, *독을 차고, 오월, 내 마음을 아실 이
백석	공동체 의식, 토속적, 그리움 고향의 자연과 인간을 대상으로 공동체의 정서를 시로 표현함. 시집 『사슴』(1936) 등이 있음.	남신의주 유동 박사봉방, 여우난골죽, 고향, 모닥불, *흰 바람벽이 있어, 나와 나타사와 흰 당나귀, 팔원 - 서행시초 3
유치환	생명력 추구, 인간의 내면의식과 존재 '생명파' 시인으로 생명에 대한 열정을 시로 표현함. 시집 『청마시초』(1939) 등이 있음.	깃발
윤동주	암울한 시대의 고뇌와 자아 성찰을 시로 표현함.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 등이 있음.	*쉽게 씌어진 시, 참회록, 별 헤는 밤, 서시, 아우의 인상화
이용악	민족, 공동체, 비극적 현실 절박한 시대적 상황을 형상화하여 시를 창작함. 시집 『분수령』(1937) 등이 있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낮은 집
이육사	현실 극복 의지, 저항, 강인한 민족정신 강인한 어조로 저항 의지와 민족정신을 시로 표현함. 유고 시집 『육사 시집』(1946) 등이 있음.	광야, 교목, *절정
정지용	감각적 이미지 감각적인 이미지와 세련된 시어를 사용하여 시를 창작함. 시집 『정지용 시집』(1935) 등이 있음.	*춘설, 고향, 향수, 장수산 1, 유리창 1, 바다 2
한용운	임의 부재, 저항의 민족정신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연가풍의 시를 창작함. 시집 『님의 침묵』(1926) 등이 있음.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 *수의 비밀



진달래꽃 / 수의 비밀

가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A]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 약산: 평안북도 영변에 있는 산으로 진달래꽃으로 유명함.

나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深衣)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B]**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 한용운, 「수(繡)의 비밀」

• 심의: 예전에, 신분이 높은 선비들이 입던 옷옷.

풀이 훈련 노트

가 진달래꽃

1 시적 화자, 상황

화자는 '나'로, 임과의 [㉠]()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2 정서와 태도

- 인종과 [㉡]()
- 임에 대한 축복
- [㉢]()을/를 위한 희생
- 애이불비(哀而不悲)

3 주제

이별의 정한과 [㉣]()

나 수의 비밀

1 시적 화자, 상황

화자는 '나'로, 임의 옷을 거의 다 만든 상태에서 주머니에 [㉠]()놓는 일만 남겨 두고 있다.

2 정서와 태도

- 임에 대한 사랑과 [㉡]()
- 당신의 부재로 인한 아프고 [㉢]() 마음
- 당신에 대한 사랑과 기다림

3 주제

[㉣]()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기다림

[풀이 훈련 노트 답]

- ㉠ ㉠ ㉡ ㉡ ㉢ ㉢ ㉣ ㉣ ㉣ ㉣

|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적 의미를 지닌 소재를 대비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 구성을 통해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경어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고난도 | 외적 증거를 통한 작품 감상 |

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진달래꽃」에서 이별은 화자가 당면한 현실이나 과거의 경험에 아니라 미래 어느 시기에 일어날지 모를 가정된 상황이다. 화자는 자신이 몹시 싫어져 임이 떠나는 일이 혹시라도 생긴다면 임을 원망하기 보다는 그 이별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임의 앞길을 축복하겠다고 고백한다. 이러한 화자의 고백은 이별로 인한 한(恨)의 정서에 수동적으로 침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고의 태도로 슬픔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고백으로 볼 수 있다.

- ① ‘가실 때에는’에 미래형 어미 ‘-ㄹ’이 쓰인 것을 보니 임과 이별한 미래 상황을 가정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진달래꽃」에는 떠나는 임의 앞길을 축복하려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떠나려는 임을 ‘말없이’ 보내 드리는 행위는 임에 대한 원망조차 사랑으로 승화시키려는 태도로 볼 수 있겠군.
- ④ 화자가 ‘고이 보내’ 주겠다고 한 것은 이별의 원인이 자신의 과거 행위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다는 것은 이별로 인한 슬픔마저 견뎌내겠다는 화자의 인고의 자세가 담긴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군.

| 시구의 의미 이해 |

3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B]에는 상대방과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② [A]에는 둘의 사랑을 이어 주는 존재에 관한 깨달음이, [B]에는 둘의 재회를 막는 존재를 향한 원망이 나타나 있다.
- ③ [A]에는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자세가, [B]에는 자신의 부정적 처지를 긍정적으로 인내하려는 자세가 형상화되어 있다.
- ④ [A]에는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성숙한 사랑이, [B]에는 상대방을 위해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는 성숙한 사랑이 드러나 있다.
- ⑤ [A]에는 미래의 기대로 현재의 아픔을 이겨내려는 태도가, [B]에는 현재의 상황을 지속하고자 하는 태도가 구체적 행위로 나타나 있다.

기출 변형 | 작품 이해의 적절성 파악 |

4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수의 비밀」에서 ‘웃 짓기’와 ‘수놓기’는 화자가 당신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행위이며 동시에 당신에 대한 정성과 사랑의 표현이다. 특히 웃 주머니에 수를 놓는 행위는 화자가 당신을 찾아가는 행위, 곧 구도적 상상력의 활동이자 사랑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수놓기를 완성하는 것은 당신을 기다리는 행위의 종결을 뜻하는 것이기에 수놓기는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 ① ‘심외’, ‘도포’, ‘자리웃’을 다 지어 놓은 것은 당신에 대한 화자의 각별한 정성과 사랑을 상징한다.
- ② ‘손때’가 묻은 ‘주머니’는 당신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보여 준다.
- ③ 수를 ‘짓다가 놓아두고’를 반복하는 행위는 당신과의 재회에 대한 화자의 의구심을 나타낸다.
- ④ ‘맑은 노래’는 당신을 기다리며 수를 놓는 행위 자체가 화자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 ⑤ ‘주머니에 붓을 만한 무슨 보물’이 아직 없다는 것은 화자에게 당신의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강조한다.



노신 / 흰 바람벽이 있어

가 시(詩)를 믿고 어떻게 살어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먼— 기적(汽笛)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의 벼개 말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항시 곤두박질해 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 내린다.
 노신(魯迅)이여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上海) 호마로(胡馬路)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등불이 나에게 속삭어린다.

여기 하나의 상심(傷心)한 사람이 있다.
 [A]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 오장: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의 다섯 가지 내장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노신: 중국의 작가 루쉰(1881~1936)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 상해 호마로: 루쉰이 살았던 중국 상하이시에 있는 지명.

나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풀이 / 훈련 노트

가 노신

1 시적 화자, 상황

화자는 '서른 먹은 사내'로, 가난한 시인이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미안함 때문에 계속 시인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①()하고 있다.

2 정서와 태도

- 시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회의
- ②() (으)로 인한 고뇌
- ③()의 삶에서 얻은 위안
- 현실 극복 의지

3 주제

현실적 고통으로 인한 고민과 그 ④() 의지

- 김광균, 「노신(魯迅)」

희미한 ㉠ 십오 축(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 때글은 다 낡은 무명샤쓰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해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 거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앉어 대국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B]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쓰 잼’과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리하듯이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 바람벽: 방이나 칸살의 옆을 둘러막은 돌레의 벽.
- 때글다: 때에 짙어 검어지다.
- 내: 동안.
- 개포: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이란 뜻을 지닌 '개'의 평안북도 방언.
- 울력: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일함. 또는 그런 힘.

나 흰 바람벽이 있어

1 시적 화자, 상황

화자는 '나'로, 저녁에 ㉡()에서 흰 바람벽을 통해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린다. 그리고 자신의 쓸쓸한 얼굴을 떠올리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2 정서와 태도

- 쓸쓸함과 ㉢()
-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 운명의 ㉣()
- 고결한 삶에 대한 ㉤()

3 주제

부정적인 현실에서도 ㉥()을/를 잃지 않으려는 삶의 자세

[풀이 훈련 노트 답]

문단 ㉠ ㉡
 ㉢ ㉣ ㉤ ㉥
 ㉦ ㉧ ㉨ ㉩

|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옮기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장소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심경 변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대조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종결하여 시적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 ⑤ 유사한 시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시구의 의미 비교 |

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달리 [B]는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현재의 부정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② [A]와 달리 [B]는 화자가 현실적 고뇌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대자에게 의존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B]와 달리 [A]는 특정 대상의 특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이와 상반되는 화자의 상황과 대비하고 있다.
- ④ [A]와 [B]에는 모두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을 위한 화자의 자기희생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화자가 특정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현재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소재의 의미와 기능 이해 |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심화시키고, ㉡은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드러낸다.
- ② ㉠은 화자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은 화자의 쓸쓸한 처지와 정서를 부각한다.
- ③ ㉠은 화자의 낙관적인 현실 인식 태도를, ㉡은 화자의 내면적인 방황 상태를 드러낸다.
- ④ ㉠은 화자의 삶에 대한 달관적인 수용 상태를, ㉡은 화자의 냉소적인 마음 상태를 드러낸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가 처한 절망적인 현실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기출 변형 고난도 |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감상 |

4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흰 바람벽이 있어」에는 '흰 바람벽'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외풍을 막는 허술한 벽으로서의 초라한 이미지를 보이기도 하고, 쓸쓸함을 자아내는가 하면, 고결함을 상징하는 하얗고 깨끗한 이미지를 지니기도 한다. 또한, 더 이상의 탈출구가 없는 한계 상황이나, 상념의 투사가 가능한 스크린이 연상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정서와 처지를 드러내며 삶과 가치관을 집약한다.

- ① '흰 바람벽'은 '좁다란 방'과 연결되어 화자가 처한 가난과 고통의 상황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화자의 심정이 '지치운 불빛'과 '어두운 그림자'로 비유되고 있군.
- ② '쓸쓸한 것', '외로운 생각'과 같은 정서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흰 바람벽'을 마주하고 있는 화자의 고독이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군.
- ③ '흰 바람벽'이 자아내는 누추하고 빈곤한 느낌은 '때 글은 다 낡은 무명샤쓰'와 같은 구체적 사물을 통해 심화되고 있군.
- ④ '흰 바람벽'은 화자의 상념이 투사되는 공간으로, 화자는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을 떠올리며 그녀의 고달픈 삶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내 쓸쓸한 얼굴'로 드러내고 있군.
- ⑤ '흰 바람벽'의 흰색이 지닌 깨끗한 이미지는 자신을 '높고'라 인식하는 화자의 내면세계와 연결되며, 이를 통해 '가난하고 외롭'지만 고결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군.

03

낯은 집

날로 밤으로

왕거미 줄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낯은 집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 대대손손에 물려줄

은동곳도 산호 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재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실이에 늙은 등글소

모두 없어진 지 오랜

㉡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내음새 그윽하다만

털보네 간 곳은 아모도 모른다

찾길이 놓이기 전

노루 멧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싸리말 동무는

이 집 안방 짓두광주리 옆에서

첫 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 “털보네는 또 아들을 봤다우

송아지래두 불었으면 팔아나 먹지”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차가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 보냈다는

그날 밤

저릅등이 시름시름 타들어 가고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일층 붉더란다

갓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 졸이며 자랐다.

풀이 훈련 노트

낯은 집

1 시적 화자, 상황

화자는 '나'로, 흉집이 된 ①()을/
를 보며, 그 집에 살았던 털보네의 ②()
했던 삶을 떠올리고 있다.

2 정서와 태도

- 털보네 가족에 대한 회상
- 싸리말 동무에 대한 연민
- 암담한 현실에 대한 ③()

3 주제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④()인
삶

[풀이 훈련 노트 답]

낯은집 ① (가래미)

몸이커리 ② (왕)거미 ③ 묘 궁벽 ④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노랑 고양이 울어 울어
종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 분주히 일하는 방앗간 한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도토리의 꿈을 키웠다

그가 아홉 살 되던 해
사냥개 핏을 쫓아다니는 겨울
이 집에 살던 일곱 식솔이
어데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 북쪽을 향한 발자욱만 눈 위에 떨고 있었다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짚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흥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
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길래
㉡ 꽃 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울안에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 이용악, 「낡은 집」

- 은동곳: 은으로 만든 동곳. 동곳은 상투를 튼 뒤에 그것이 풀어지지 않도록 꿸는 물건.
- 산호 관자: 산호로 만든, 망건에 달아 당줄을 꿰는 작은 단추 모양의 고리.
- 무곡: 이익을 보려고 곡식을 몰아서 사들임, 또는 그 곡식.
- 짓두광주리: '반진고리'의 함경도 방언. 비늘, 실, 골무, 형견 따위의 바느질 도구를 담는 그릇.
- 저름등: 뜨물의 양금과 겨를 반죽한 것을 겨름(겹질을 벗긴 삼대)에 발라 말리어 등잔 대용으로 쓰던 등. '저름'은 '겨름'의 함경도 방언임.
- 아라사: '러시아'의 음역어.

표현상의 특징 파악

1 **윗글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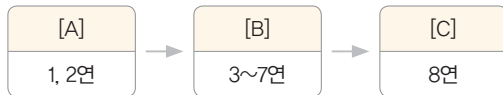
- ①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 ③ 계절적 이미지를 부각하여 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인물의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설의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 **고난도** | 시상 전개 방식 파악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이 시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화자는 자신이 직접 관찰한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말을 더해 시적 대상에 얽힌 사연을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전개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에 따라 감상한 내용을 말해 볼까요?

- ① [A]와 [C]에서는 [B]와 달리 화자의 직접 진술로만 전개되고 있어요.
- ② [A]와 [C]에서는 현재를 배경으로 털보네의 집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 ③ [B]에서는 화자가 사건의 진행에 직접 개입하여 털보네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요.
- ④ [B]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은 화자가 경험하지 못한 사건을 자연스럽게 전달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 ⑤ [A]~[C] 모두 털보 가족이 겪는 경제적 궁핍을 중심 사건으로 하고 있어요.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인물의 가난했던 형편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인물의 부재가 갑작스럽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 ③ ㉢: 인물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이웃 간의 인정이 메마른 각박한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인물이 처한 냉혹한 현실과 이에 대한 화자의 불안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 ⑤ ㉤: 과거의 풍요로움과 대비되는 현재의 암울한 상황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감상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일제 강점기라는 격동기를 살아야 했던 문인들의 현실 인식은 자연을 매개로 하여 확장되고, 자연으로부터 지향점을 얻기도 했다. 이용악의 작품에서도 자연과 지명은 그 자체가 묘사의 대상이거나 중심 주제를 이루기보다는 특정 정서를 드러내거나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기 위한 문학적 장치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의 작품에 차용된 자연과 지명의 이미지는 자신이 체험했던 역사와 그 비극성, 또 일제 강점기를 살아내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치열한 고뇌의 흔적과 절망적 상황을 시적 긴장 속에 녹여내는 문학적 도구로 기능한다.

- ① '왕거미'가 분주하게 줄을 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인적이 끊긴 대상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군.
- ② '당나귀'와 '둥글소'가 모두 없어졌다는 것은 일제의 착취로 인한 민중의 경제적 파탄을 보여 주는군.
- ③ '노루 멧돼지 쪽제비'가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은 일제 강점기 이전의 평화로웠던 상황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④ '오랑캐령'과 '아라사'는 이상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화자의 지향점을 집약적으로 제시한 곳 이군.
- ⑤ '글거리'만 남은 '살구나무'는 일제 강점기를 살아야 했던 민중의 절망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군.

04

춘설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 멧부리와
 서늘옴고 빛난 • 이마받이하다.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 웅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 ㉠ 꿈 같기에 설어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 움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정지용, 「춘설(春雪)」

- 우수절: 입춘과 경칩 사이의 절기인 우수로, '봄비로 물기운이 가득한 때'라는 뜻임. 양력 2월 18일경.
- 멧부리: 산등성이나 산봉우리의 가장 높은 꼭대기.
- 이마받이: 이마를 부딪치는 것.
- 웅송그리고: 춥거나 두려워 몸을 공상맞게 몹시 움츠려 작게 하고.
- 움짓 아니 기던: 움직이지 않던.
- 햇옷: 안에 솜을 두어 지은 겨울옷.

풀이 훈련 노트

춘설

1 시적 화자, 상황

화자는 아침에 일어나 ㉠()이/가 내린 풍경을 보고 깜짝 놀라며, 봄을 맞는 자연의 모습을 보고 있다.

2 정서와 태도

- 눈 덮인 멧부리를 보고 ㉡().
- 봄을 맞아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에 감탄함.
- 봄을 맞는 반가움
- 겨울이 가는 것에 대한 ㉢()

3 주제

춘설이 내린 자연에서 느끼는 봄의 ㉣()

[풀이 훈련 노트 답]

㉠ 겨울 ㉡ 뉘러 ㉢ 문득 ㉣ (겨울)곡 ㉤

1 | 시상 전개와 표현 방식 파악 |

1 |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로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빈번하게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수미상관의 기법으로 변화하는 대상의 속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⑤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비애감을 드러내고 있다.

2 | 시구의 의미 이해 |

2 | ㉠을 <보기>와 같이 두 의미로 해석할 때, ㉡와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설어라'의 의미	㉠의 의미
낮설어라	㉡
서러워라	㉢

- ① ㉡: 예년과 다르게 이번 봄은 무척 특별해서 낮선 느낌이 드는구나.
- ② ㉡: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낮설기만 하구나.
- ③ ㉢: 움츠리며 살았던 지난겨울의 삶이 새삼 서럽게 느껴지는구나.
- ④ ㉢: 생명력이 넘치는 봄의 도래를 더디게 하는 것 같아 서럽구나.
- ⑤ ㉢: 지난겨울의 추억이 눈 녹듯이 모두 사라져 버리는 것이 서럽구나.

3 | 화자의 태도와 정서 이해 |

3 | ㉣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겨울과 봄의 특성을 모두 경험하고 싶어 한다.
- ② 화자는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내린 춘설을 보며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다.
- ③ 화자는 계절이 바뀌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상반된 감정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 ④ 화자는 때가 지났음에도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 ⑤ 화자는 겨울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춘설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싶어 한다.

고난도 |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감상 |

4 |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춘설」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내린 눈을 소재로 하고 있다. 초봄에 눈이 내리는 뜻밖의 상황으로 화자는 한편으로 놀람과 긴장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의 생명력에 경이로움과 반가움을 느낀다. 이렇게 화자가 인식한 계절의 변화 과정은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동원하여 형상화하는 방식으로 드러나 있다. 봄눈을 꽃샘추위와 연결하여 인식하는 일반적인 관점과 다르게, 봄눈을 봄의 생동감을 뜻하는 소재로 활용한 시인의 참신한 발상이 돋보인다.

- ① '먼 산이 이마에 차라.'는 갑작스러운 봄눈에 대한 화자의 놀람을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드러낸 것이군.
- ② '서늘옅고 빛난'은 뜻밖의 상황에 관한 화자의 놀람과 반가움을 촉각과 시각의 복합적 심상을 통해 표현한 것이군.
- ③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라는 표현에서 화자가 계절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새순이 돋는 '미나리'와 입을 오물거리는 '고기'는 자연의 생명력에 화자가 느끼는 경이로움의 근거로 볼 수 있겠군.
- ⑤ '철 아닌 눈'은 봄눈을 겨울의 추위를 연장하고 봄의 생동감을 지체시키는 대상으로 여기는 화자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군.